

대부도 관광지 개발 계획과 상충되는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건설입지 추진 반대 건의안

(신성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18
----------	------

발의연월일 : 2012. 10. 23.

발의자 : 김동규, 김동수, 김영철, 김정택, 김철진,
나정숙, 박영근, 박은경, 성준모, 송두영,
신성철, 윤미라, 윤태천, 이민근, 이형근,
전준호, 정승현, 정진교, 한갑수, 함영미,
황효진(21인)

1. 제안 이유

- 안산시는 지난 1994년 대부도를 편입한 이후로 20여년간 대부도 종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 최적의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생태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대부도 LNG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지리적이나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안산시의 장기 발전 전략과 상충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LNG 생산기지 건설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9월 20일 안산시에 천연가스 수요의 증가로 신규 LNG 생산기지를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동 메추리섬 인근에 30만평 이상의 LNG 생산기지 건설 입지를 문의해 온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안산시와 사전 협의 없이 2012. 7월경 입지조사 용역을 독단적으로 발주하면서 75만 안산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의 훼손한 사례이므로 심각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 또한 입지조사 용역 발주시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메추리섬 인근 지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1호 「제1차(2010~2019) 마리아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된 수도권의 마리아 항만 개발 대상 지역임을 간과했음.
- 더불어 LNG 생산기지 입지 주변은 향후 갯벌과 연계한 개발의 최적지로 평가받는 지역이며, 안산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판단에 따라 기 추진 중인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과 연계한 주변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안산시에서도 녹색해양 관광도시 안산이라는 슬로건하에서 대부도 해솔길 일원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국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임.
- 그리고, LNG 생산기지 입지 선정이 완료되어 생산기지가 건설될 경우 대부도 주변 해역은 대형 LNG 수송선이 운항이 불가피하므로 인공 어초 시설 및 어업권이 형성되어 있고 갯벌과 주변 해양 생태계의 파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5만 안산시민과 함께 국가의 장기 개발계획과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도 종합발전 기본계획에 역행하고 천혜의 생태관광자원의 파괴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존권에 큰 위협이 예상되므로 대부동 메추리섬 인근 지역을 LNG 생산기지 건설입지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대부도 관광지 개발 계획과 상충되는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건설입지 추진 반대 건의문(안)

안산시는 지난 1994년 대부도를 편입한 이후로 20여년간 대부도 종합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 최적의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생태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9월 20일 안산시에 천연가스 수요의 증가로 신규 LNG 생산기지를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동 메추리섬 인근에 30만평 이상의 LNG 생산기지 건설 입지를 문의해 온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안산시와 사전 협의 없이 2012. 7 월경 입지조사 용역을 독단적으로 발주하면서 75만 안산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의 훼손한 사례이므로 심각하게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입지조사 용역 발주시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메추리섬 인근 지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1호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된 수도권의 마리나 항만 개발 대상지역임을 간과한 상황이다.

더불어 LNG 생산기지 입지 주변은 향후 갯벌과 연계한 개발의 최적지로 평가받는 지역이며, 안산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판단에 따라 추진 중인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과 연계한 주변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안산시에서도 녹색해양 관광도시 안산이라는 슬로건하에서 대부도 해솔길 일원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국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LNG 생산기지 입지 선정이 완료되어 생산기지가 건설될 경우 대부도 주변 해역은 대형 LNG 수송선이 운항이 불가피하므로 인공 어초 시설 및 어업권이 형성되어 있고 갯벌과 주변 해양 생태계의 파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5만 안산시민과 함께 국가의 장기 개발계획과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도 종합발전 기본계획에 역행하고 천혜의 생태관광자원의 파괴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존권에 큰 위협이 예상되므로 대부동 메추리섬 인근 지역을 LNG 생산기지 건설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11. 1.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